



2020년 여름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로 389번길 42-19
T. 031-953-1625 | F. 031-953-1626 | 홈페이지 www.nestofpeace.com | 밴드 '평화를 품은 집'



2020년 평화도서관의 여름



평품의 여름은
야외 정자에 누워 가을하늘 같은 푸르름에 마음을 정화합니다.

비오는 날
자연에 떨어지는 비는 다양한 음을 선물합니다.
촉촉하게 내리는 비는 온갖 초록들을 빛나게 하고
굵은 소나기 소리는 세상의 모든 잡음들을 집어 삼킵니다.
바람과 함께 오는 비는 감히 맞설 수 없는 위용을 자랑합니다.

한여름 땀별
굴하지 않는 오색 창연한 꽃들도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숲속 바람을 만나러 여행 오세요.
어느 날 문득... 이면 더욱 좋지요.



았다. 식물도감을 보며 어찌면 그렇게 조화롭게 돕고 사는지도 알게 되고 코로나 19도 극복할 것 같다.
 '관계는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 이라고 외치고 끝.
 -평화는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관계를 주고 받으며 그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다.

환경보따리 체험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섬에 사는 생명들의 입장에서 그림책을 보게 되니 몹시 죄책감이 들었다. 가해자 인간과 피해자 생태계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만 집중되고 개인의 실천만 강조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 뭔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할 듯 하다.
 그림책을 보고 해서 아동일 거라 생각했는데 성인인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많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다음에 다른 보따리 경험을 하고 싶네요.



환경 보따리 체험

평화도서관을 찾아온 사람들

중랑마을넷 책보따리 체험



7월 6일. 코로나 19로 더욱 필요해진 평화책보따리, 가족, 동아리모임,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서먹함도 없애주고 미처 생각 못한 것들을 함께 게임을 즐기는 동안 어느덧 내 머릿속, 가슴속에 들어와 있는 소리들을 만납니다. 중랑마을넷 에서는 세 모듬이 각각 한 개의 보따리를 체험한 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권보따리 체험을 했습니다.
 짧고 간단한 책이었지만 그 많은 단어들을 생각해 낼 줄 몰랐습니다. 희생, 도움, 힘 어느 곳에 넣어야 할지 모르는 단어들도 많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먼 것이 아닌 가까운 이웃으로, 틀린 게 아닌, 다른 것이고 우리와 같음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떠올렸던 단어들이 폭이 너무 좁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따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걸 알았습니다.
 아쉬운점. 시간이 많았다면 다른 보따리 체험을 해보고 싶었다.

관계 보따리 체험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 보드게임을 하니 신선했다. 처음에는 이기기에 급급했는데 다른 샘들이 끝까지 나오길 기다리며 함께 챙기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좋



(위)인권 보따리 체험 / (하)관계 보따리 체험



화전 마을학교 '우리들의 야자수' 팀 다녀왔습니다.

5월30일 갑자기 하룻밤 재워달라며 방문한 화전 마을학교 선생님들. 하룻밤 도서관에서 묵으며 책보따리에 푸욱 빠져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제노사이드에 대한 전시와 너무 포근한 도서관에서의 이야기보따리 체험
 카페에서 먹은 빵, 너무나 좋은 책들과 좋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마음에 평화를 품고 돌아갑니다. 다음에 또 보요.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관 - 오кина와	82さいの中学生 はっちゃん	카노우 히데아키 / 스즈키 치카코	沖縄時事出版
	The sad song of Okinawa	마루키 토시 and 마루키 이리	Life Itself Our Most Precious Treasure (R.I.C.Publications)
	カミちゃん、起きなさい!生きるんだよ	大城 貞俊	インパクト出版会
	ケイ命がおしえてくれたもの一つしま丸・沖縄戦	金城 明美	沖縄タイムス社
	シュガーローフの戦い(上 / 中 / 下) 3권	신자토 켄신	琉球新報社
	ひめゆり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 그림 三田圭介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りゅう子の白い旗—沖縄いくさものがたり	新川明, 磯間比呂志	Mugen
六月二十三日 アイエナー沖縄	大城 貞俊	インパクト出版會	
관장의 서가	나의작은화판 : 권윤덕의 그림책 이야기	권윤덕 지음	둘베개
	남은고양이	김경 지음	창비
	당신이집에서논다는거짓말	정아은 지음	천년의상상
	빵과수프,고양이와함께하기좋은날.둘	무레 요코 지음 / 이소담 옮김	북포레스트
	빵과수프,고양이와함께하기좋은날.하나	무레 요코 지음 / 이소담 옮김	북포레스트
	작은책방,우리책줍습니다 : 동네서점의 유쾌한 반란	백창화, 김병록 지음	남해의봄날
광주 5.18	아무리얘기해도 - 만화로보는민주화운동	마영신 만화	창비
	저수지의아이들	정명섭 지음	생각학교
기타제노사이드	안전시대고라즈데-보스니아내전의기록	조 사코 지음 / 함규진 옮김	글눈그림밭
더불어사는삶	닐과순다리	미탈리 퍼킨스 글 / 김선희 옮김	도토리숲
민주주의	동물들의우당탕탕첫선거	안드레 로드리게스, 라리사 히베이루, 파올라 제즈구알도, 페드로 마르콘 지음 / 조경숙 옮김	길벗어린이
배려	가을아이	이와사키 치히로 그림 다치하라 에리카 글 / 백승인 옮김	달리
	제비꽃 마을의 사계절	오주영 지음 / 김슬기 그림	창비
외국 / 일본	あだんのぼうけん	후지오카 와카	射水市大島絵本館
외국그림책	빨간모자와검은도시	마리 보이트 지음 / 김영진 옮김	M창비(미디어창비)
	사과를어떻게꺼내지?	기무라 유이치 글 / 다카바타케 준 그림 김숙 옮김	창비
	우리 눈사람	M. B. 고프스타인 지음 / 이수지 옮김	M창비(미디어창비)
외국평화	(A)mapintotheworld	KaoKaliaYang ; illustrated by Seo Kim	caolhoda books
	(the)PeaceBook	by Todd Parr	Little Brown
	ChildSoldier : WhenBoysandGirlsareUsedinWar	byJessicaDeeHumphreys ; Michel Chikwanine ; illustrated by Claudia Davila	Hachette Children's Group
	Newkid(뉴키드)	Jerry Craft	Harper
	When Aidan became a brother	By Kyle Lukoff illustrated by Kaylani Juanita	Lee&Low books
	오카마사하루기념나가사키평화자료관(일)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나가사키평화자료관
오카마사하루기념나가사키평화자료관(한)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나가사키평화자료관	
인권	SELMA(셀마-우리의꿈이세상을바꾼다)	에마 두버네이 감독	
	뽀뽀머리엔	고정욱 외 지음	특별한서재
	딸에게들려주는인종차별이야기 : 혐오와 차별을 밀어내는 가장 따뜻한 대화	타하르 벤 젤룬 지음 / 홍세화 옮김	롤러코스터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인권 / 난민	낮선이웃 : 어느덧 우리 곁에 깃든 한국의 난민들	이재호 지음	이데아
	모든것이사라진그날	니콜라 데이비스 글 / 레베카 콕 그림 명혜권 옮김	우리동네책공장 더모스트북
	불법자들 : 한 난민 소년의 희망 대장정	글오언 콜퍼, 앤드류 던킨 글 / 민지현 옮김	밝은미래
	저도난민은처음입니다만	박진숙 지음	에코팜므.맑은나무
	정주진의평화특강 : 가짜뉴스, 난민, 국가 폭력, 민족주의, 환경으로 살펴본 평화 이야기	정주진 글	철수와영희
	천장위의아이	비베카 웨그렌 지음 / 강수돌 옮김	봄별
인권/노동인권	(나,너우리의)일과권리탐구생활 : 착한 사회를 위한 노동과 노동인권 이야기	배성호, 이수정 글 / 김소희 그림	파란자전거
인권/성소수자	나의첫젠더수업	김고연주 지음	창비
인권 어린이인권	모두가행복할권리인권 : 어린이를 위한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	바바라 피크자, 도라 씨스니 글 / 권양희 옮김	봄별
	어린이의권리를선언합니다!	반나 체르체나 글 / 글로리아 프란젤라 그림 김은정 옮김	봄별
인권 / 장애	우리는코다입니다 : 소리의 세계와 침묵의 세계 사이에서	이길보라, 이현화, 황지성 지음	교양인
인권/학교폭력	폭력, 특별한사람들의이야기일까?	김민화 글 / 음미하다 그림	다림
자연환경	1.5도생존을위한멈춤 : 기후위기 비상행동 핸드북	박재용 지음	뿌리와이파리
	내친구지구	패트리샤 매클라클렌 지음 / 김지은 옮김	미디어창비
	떡갈나무바라보기 : 동물들의 눈으로 본 세상	주디스 콜, 허버트 콜 지음 / 후박나무 옮김	사계절
	밀양을듣다 : 밀양 탈송전탑 탈핵 운동의 담론과 현장	김영희 외 지음 / 김영희 기획·역음	우월의봄
전쟁	우린일회용이아니니까 : 쓰레기 사회에서 살아남는 플라스틱 프리 실천법	고금숙 지음	슬로비
	군대없는나라전쟁없는세상	김영희 외 지음 / 김영희 기획·역음	우월의봄
제주 4.3	안팎정원	키아라 메잘라마 글 / 레지스 르종 그림 이주희 옮김	놀궁리
	(청소년을위한)제주4.3	고진숙 지음 / 이해정 그림	한겨레
	돌아보면그가있었네	제주작가회의 지음	각
통일	빛창-만화로보는민주화운동	김홍모 만화	창비
	고난과웃음의나라 :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정병호 지음	창비
	북한경제입문	高瀬淨 지음 / 이남현 옮김	청년사
	에세이스트	김종완	에세이스트사
	인민의얼굴 :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	한성훈 지음	둘베개
편견	평양랭면, 멀리서왔다고하면안되잖구나 : 통일을 기대하게 하는 북한 음식 이야기	김양희 지음	폭스코너
	Sulwe	by Lupita Nyong'o, illustrated by Vashti Harrison	Simon & Schuster Books for Young Readers
	나보다멋진새있어?	매리언 듀카스 글·그림 / 서남희 옮김	국민서관
	넌특별한아이야	사라 페니패커 글 / 말라 프레이지 그림 / 윈자인 옮김	보물창고
	뜨개질하는소년	크레이그 팜랜즈 글 / 마가렛 체임벌린 그림 천미나 옮김	책과콩나무
	분홍소녀파랑소년	패트리샤 피티 글·그림 / 양병현 옮김	푸른숲주니어
	아주특별한우리형.2,우리가바꾸는세상	고정욱 글 / 이경국 그림	대교북스주니어
	편견 : 사회심리학으로 본 편견의 뿌리	고든 올포트 지음 / 석기용 옮김	교양인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편견	행복한늑대	엘 에마토크리티코 글 / 박나경 옮김	봄별
평화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시릴 디용, 피에르 라비 글 / 권지현 옮김	한울림어린이
	뉴키드	제리 크래프트 글·그림 / 조고은 옮김	보물창고
	슬픈노벨상 : 인류를 구했던 영광의 노벨상, 왜 세계의 재앙이 되었을까?	정화진글, 박지윤 그림	파란자전거
	어느날장벽이 무너진다면	한나 쇼트 글 / 유영미 옮김	뜨인돌출판
평화그림책	63일	허정운 글 / 고정순 그림	반달
	가끔씩 나는	조미자 글·그림	핑거
	겨울, 나무	김장성 글 / 정유정 그림	이야기꽃
	괜찮을거야	시드니 스미스 글·그림 / 김지은 옮김	책읽는곰
	나랑 놀아줄까	말라 프레이지 글·그림 / 김지은 옮김	평화롭품은책
	나의두발자전거	세바스티앙 플롱 글·그림 / 명혜권 옮김	봄별
	내키가더커!	경혜원 지음	비룡소
	당근 유치원	안녕달 지음	창비
	모모와토토	김슬기 지음	보림
	목소리	김영화	제즈그림책미술관 시민모임
	생쥐나라고양이국회	알리스 메리쿠르 글/마산진 그림/이세진 옮김	책읽는곰
	시민은무엇을할수있을까요?	데이브 에거스 글/손 해리스 그림/김지은 옮김	이마주
	아무도 지지않았어	황선미 글 / 백두리 그림	주니어김영사
	어른들은 절대로안그래?	다비드 칼리 글 / 뱅자맹 쇼 그림 / 신형건 옮김	보물창고
	엄마의심	이진 글 / 한병호 그림	보림
	위대한식탁	마이클 J. 로젠 글 / 김서정 옮김	살림(살림출판사)
	이선이필요할까?	차재혁 글 / 최은영 그림	노란상상
	저, 할말있어요!	저스틴 로버츠 글 / 크리스천 로빈슨 그림 김소연 옮김	주니어김영사
	진정한 챔피언	파얌 에브라히미 글 / 레자 달반드 그림 이상희 옮김	키다리
	차표는 어디로날아갔을까	리우쉬공 지음 / 김현정 옮김	엘로스톤
파워북 : 누가, 왜, 어떻게 힘을 가졌을까?	클레어 손더스 외 글 / 노지양 옮김	천개의바람	
후리소리	정정아 글·그림	평화롭품은책	
폭력	내눈앞에서(부제:디아르바키르의아이들) Beforeyoureyes(DVD)	Miraz bezar	Janus Film
	폭력은 어디서왔나 : 인간성의 기원을 탐구하다	아마가와 주이치 지음 / 한송동 옮김	공출판
한국그림책	팔빙수의 전설	이지은 글·그림	웅진주니어
한국 민주주의	(일제강제동원)이름을기억하라!	정혜경 글 / 최혜인 그림	사계절
	1987그날-만화로보는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	유승하 만화	창비
	군함도에 귀를 기울이면 : 히시마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과 중국인의 기록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지음 박수경, 전은옥 옮김	선인
	민주학교란 무엇인가 : 민주시민 교육과정에서 민주적 학교문화까지	이대성, 이병희, 이지명, 이진희, 최종철, 홍석노 지음	교육과실천
	사일구 - 만화로보는민주화운동 4.19혁명	윤태호 만화	창비
	아홉살독립군, 뽕추산금순이	함영연 글 / 최현지 그림	내일을어는책
학교의당연함을버리다 : 고지마치 중학교의 학교개혁 프로젝트	구도 유이치 지음 / 정문주 옮김	미래지향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한국전쟁	가면권력 : 한국전쟁과 학살	한성훈 지음	후마니타스
	꽃갈던청춘, 회문산능선따라흩뿌려지다 :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기록, 호남·제주 편	정찬대 지음	한울아카데미
	멈춘시간1950 : 못다 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야기	신기철 지음	인권평화연구소
	아무도모르는누구나아는죽음 : 한국전쟁과 이승만의 거대한 적들 이야기	신기철 지음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전쟁과재현 : 마을 공동체의 고통과 그 대면	최정기, 정호기, 최호림, 김권호, 노영기, 양라운, 박현정 지음	한울
	판문점체제의기원 :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김학재 지음	후마니타스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1만 4,343명 명단 수록	신기철 지음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 : 죽은 자들을 위한 산 자들의 이야기	신기철 지음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홀로코스트	아름다운 딱따구리를 보았습니다	미하우 스킨스키 글 / 알라 반크로프트 그림/ 이지원 옮김	사계절출판사
	프리모레비말 : 아우슈비츠 생존 화학자의 마지막 인터뷰	프리모 레비, 조반니 테시오 지음 이현경 옮김	마음산책

‘평화롭품은집’
집장님이 들려주는 **새책 이야기**



군함도에 귀를 기울이면
- 히시마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과 중국인의 기록

해마다 8월이 오면 우리의 광복과 일본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됩니다. 일명 지옥의 섬이라 불렸던 히시마, '군함도(軍艦島)'의 문헌인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일본은 이 섬을 유네스코가 정한 일본의 자랑스런 '근대화산업유산(세계최초콘크리트아파트건축물)'으로 등재해 피해 당사자국인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일본 침략에 의해 희생당한 히시마 탄광 노동자(한국인)들의 참혹한 고통의 역사를 은폐 하고 그들의 근대 건축 기술을 홍보하는 기록물로 전시장으로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이 책은 히시마의 역사와 조선인, 문헌진 진실을 비춘 '히시마 자료'(히시마 조선인들의 사망 실태) 분석, 히시마 신음 소리, 미쓰비시여, 공양탑에 갇힌 조선인 노무자의 유골을 돌려다오 등이 담겨 있습니다.



빵을 준 첼로
빵을 사기 위해 줄 서있는 사람들을 목격해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스니아 전쟁. 어차구니없이 목숨을 잃게 된 22명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 인명 살상은 안 된다며 적 앞에서 목숨 걸고 첼로를 연주하는 용기 있는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생애 사려이야기.



나랑 놀아 줄까..
칼데콧 상 수상 작가인 말라 프레이지의 그림책으로 소외된 아이를 주변에 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는 책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데 서툴거나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예리하게 잡아냅니다. 그러면서도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장난스러운 구성과, 단순하지만 정감 있는 그림으로 풀어냄으로써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소장이자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전문연구자인 신기철의 새 책으로 한국전쟁 당시 남북의 전선이 교차되어 혼란과 갈등이 심했던 웅진군 섬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인천 상륙작전에 가려지고 바다에 갇힌 섬이기에 특히 고통이 심했던 웅진 주민들, 그 당시를 겪은 주민들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며, 구체적인 역사의 민얼굴을 마주한다.



뉴키드
2020뉴베리 100년 역사상 그래픽노블리서는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제리 크래프트의 《뉴 키드》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우정, 인종, 계급, 왕따 등의 키워드를 신선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 낸 작품이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조던 뱅크스에게 만화 그리기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부모는 그가 꿈꾸어 온 예술학교 대신, 명문 사립학교에 들여보낸다. 조던은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학년 전체에서 몇 안 되는 유색인종 중 하나이다. 조던은 과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5.18전시



평화를품은집은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기념재단의 도움을 받아 <5.18, 위대한 유산>展(5월 15일-12월 말)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방식으로 구성된 <5.18, 위대한 유산>전은 5.18민주화운동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5.18 당시 사건의 생생한 현장을 실감하게 할 것이며,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정신과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세월호전시



‘평화교육센터’가 평화도서관 옆으로 들어섭니다.

2019년 5월 그동안 마을연구사업을 진행해왔던 평화도서관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특성화 사업(2단계)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노력한 덕분에 사업이 채택되어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은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평화도서관 옆에 증축될 평화교육센터의 설계 작업에 들어갔고, 21년에는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요즘은 두포2리 마을사람들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기초교육을 진행중이며 함께 모여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 마을회의



를 한 달에 두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도서관이 자리한 이 도서관과 마을사람들이 모여 파평! 하면 평화가 떠오를 수 있게 미래의 꿈을 실현해가고자 준비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책소독기 설치했어요.

파주시 도서관 정책팀에서 에어컨 설치와 책소독기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에어컨과 코로나 19 시대에 도서관의 책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사업에 평화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에서 진행하는 2020년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에 평화도서관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

평화통일활동가워크숍

2019년 1년을 파주시의 작은도서관들은 평화와 통일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실로 올해부터는 각 학교로 찾아가 우리의 배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학교는 휴교가 장기화 되고 우리 모두 기다림에 지쳐있습니다.

피라미드를 통한 나의 평화감수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송명화’책친구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도서관은 협력멘토링 진행중.

평화도서관에서 2020년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협력 멘토링’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멘토로 참여하는 평화도서관은 멘티도서관인 문산힐스테이트작은도서관, 좋은이웃작은도서관과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10여회를 만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지켜볼수 없죠! 지난 7월 4일과 5일, 그동안 만들었던 평화통일 교육수업안을 재검토하고 다시 준비하는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모두가 도서관에 삼삼오오 모여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소소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파이팅 합시다.

북트레이러&SNS 교육

바야흐로 초연결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도서관은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움직이는 공간이지만 고인 물이 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발맞춰 함께 가야 하기에, 중앙도서관에서 홍유리 살림꾼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은 서툴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로



만날 수 있는 평화도서관의 미래를 그리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평화 보드게임 그림책 여행’ 꿈의학교는 절찬리에 진행중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졌던 꿈의학교는 드디어, 6월 27일에 첫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평화도서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고양시에서 오는 친구들까지 20여명의 친구들과 함께 뜨겁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처음으로 만드는 책보따리 아니, 책캐리어(청소년들의 감성에 맞게~)이기에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걸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첫 만남에는 자기 자신을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의 이름표를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책보따리에 대해 설명보다는 기존의 책보따리 체험을 모둠별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7월 25일, 26일에는 드디어, 모둠별로 책을 고르고, 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책보따리 만들 기초안과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걱정의 마음에서, 감탄의 마음으로 바꾸게 해주는 꿈의학교 친구들! 앞으로 어떤 ‘책캐리어’가 탄생하게 될지 함께 기다려주세요~

인문학당

지난 상반기 인문학당 <한국전쟁이 버린 인간쓰레기>는 전북대 영문학과 왕은철 교수님이 강연하셨습니다. 한국전쟁기 중국군 포로의 삶을 다룬 하진의 장편소설 <전쟁쓰레기>를 통해 강연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참가자들이 책을 많이 읽고 오셨고 여러 생각을 나눠주셔서 질의응답시간에 더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평화길찾기모임

제노사이드 연구를 통해 평화를 찾는 제노사이드 전문 공부 모임 ‘평화길찾기’ 9기 모임이 새롭게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엔 서울에서 백리길도 마다 않고 열공하려 온 평화길찾기 9기 모임의 토론소서를 소개합니다.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니콜라이 호바니시안 지음, 이현숙 옮김, 한국학술정보, 2011년

국제연합이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사건이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입니다. 국제연합은 특정 민족이나, 종교, 인종, 계층 등 특정 구성원을 멸살할 목적으로 집단 학살 하는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대상이 아르메니아인 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나라 이름마저 생소한 아르메니아의 역사와 1차 세계대전 중 오스만제국에 의해 자행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의 원인과 필요조건, 정치적 동기와 민족적-인종적 동기, 제노사이드의 규모와 실행 메커니즘을 밝히는 한편, 이를 계획하고 잔혹하게 실행에 옮겼던 청년 투르크당과 그 대표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이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회원소식은 회원이면 모두 소식지를 통해 원하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개를 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꿈꾸는교실'부터 시작된 인연으로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계신 유진희님의 이야기, 도서관 바로 옆에서 깊은 연을 맺고 있는 양은영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양은영 후원회원

산책방은 집에서 하는 가정 현책방입니다. 한 권 한 권 저 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여기에 있게 된 책들이 다시 새로운 사연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산 속의 책방, 누군가가 이미 산 책, 잊혀진 책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산 책이라는 의미의 산책방에서 책 속으로의 산책을 떠나 보면 어떨까요. 산책방에서는 뭐라도 나눌 수 있어요. 먹거리, 재능, 놀이, 심...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날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싸들고 오세요. 비즈공예, 뜨개질, 그림그리기, 수다, 맛있는 것 만들어 먹기...

산책방 이용방법 : 주인장에게 연락하여 미리 약속하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연락처 : 010-5218-8105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산책방 먹거리 : 라면과 팔빙수(여름), 단팥죽(겨울), 아재김밥(주말, 예약만 가능)



유진희 후원회원

나의 소중한 중년은 커브스와 함께

아이들이 5살, 2살때이니까 내가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꿈꾸는교실'에 방문했다. 당시 나는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으로서 작은도서관 운동에 관심이 있었다. '꿈꾸는교실'은 좋은 어린이문화와 문학을 실천하는 훌륭한 텃밭으로 보였다. 이렇게 알게 되었고 '꿈꾸는교실'에서 원어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도 하면서 작은 인연이 이어졌다. 30대 후반에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아파트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지만 사립도서관은 아니기에 공동운영 체제로 공공의 이익과 선을 더 요하기에 운영이 쉽지 않았다. 그 때 황관장님의 조언이 많이 도움 되었다.

나의 가치관과 철학과는 상관없이 다수의 가치관과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아파트 도서관에 봉사에 지칠 때 쯤 내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왔다. 내 인생에 40대 후반은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며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일은 '커브스'다. 커브스는 여성전용 순환운동 센터이다. 말 그대로 여성들이 운동하는 센터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을 함께 할 수 있다.

지금 중년의 나는 아직도 어린이도서관연구회는 18년째 활동하고 있고 가끔 목공이나, 민화를 틈틈이 그리고 있다. 그리고 커브스를 열심히 운영하며 나의 건강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내 인생의 노년은 '평화를품은집'을 닮은 곳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소박한 삶을 살 것 같다.

커브스 교하클럽 전화번호 031 945 9930

평화를품은집을 새롭게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4월~7월 : 장다울(사야카), 강호상, 권은민, 황정인, 이현숙, 방혜선, 백정희(이경민), 김웅, 김기은, 하소정, 조희정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은 작년 9월에 파주를 휩쓴 돼지열병으로 평품집을 찾는 발걸음이 뚝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의 후원으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야카가 들려주는 한-일 평화이야기

사야카는 사게가 맛있는 일본 니키카타현 출신이며 한국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일본문화/다문화 강사입니다. 그림책과 뮤지컬을 사랑하고 다문화 책놀이활동을 통해 다양한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책 활동가입니다.

6월의 이야기 '배려'

장애가 있는 친구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함에 대한 느낌을 알 수가 없니까요. 배려하기 전 불편한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7월의 이야기 '공감'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몸 속에 꼭꼭 가둬놓았던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말 한 마디에 눈물로 터져 나온적 없나요? 이번에는 그런 '공감의 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하늘을 나는 사자 : 매일 고양이들을 위해 하늘을 날고, 먹잇감을 가져다 주는 사자. 하지만 사실은 너무 지쳐있고 낮잠이 취미라는 사자 고양이들은 그걸 농담이라며 웃어 넘겨버립니다. 어느 날 사존 쓰러져 결국 돌이 되고합니다. 사자는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까요?



꿈과 작은 새 :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친구 작은새를 잃어버린 꿈. 잊어버리려 하지만 잊는일이 쉬운일일까요? 꿈의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숲속 친구들은 모두 한마디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꿈에게 정말 공감되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사야카가 묻는 - 공감의 한 마디에 눈물이 난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뽀뽀뽀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있네요.

밤에 푹 자~~~ 약속, 엄마에게



파평초등학교 평화수업

코로나19가 많은 것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년 평화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평화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파평초등학교가 올해는 도서관이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등교하는 학생들은 아크릴판을 앞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접촉도 조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풍경이 저희에게는 낯설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반가웠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4교시 수업을 학년별로 열심히 했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물러나고 평화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만나길 기대합니다.

평화교육 내용

- 1학년 - 나에게 평화란? / 평화팝업북 만들기
- 2학년 - 칭찬할게 많은 우리 친구들이야 / 친구관계, 배려와 소통
- 3학년 -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 나는 중립! 평화로 바꾸는 외교관이 될 수 있어
- 4학년 - '두둑의 노래' 장경선 작가와의 만남 / 세계 최초의 제노사이드 아르메니아 이야기
- 5학년, 6학년 - 문학작품을 통해본 광주 5.18민주화운동 이야기 / 홍성담 작가의 '운동화비행기' 영상동화, 권윤덕 작가의 '씩스틴' 영상동화 보기





평품소극장 영화 소개

4월 추천 영화 **컨테이션** 2011, 12세, 103분,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아무 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여행객 한 명이 공항의 바에서 과자 그릇에 손을 댄 후 웨이터에게 신용카드를 내민다,
사람들은 한번씩 악수를 한 후 회의를 시작한다,
한 남자가 붐비는 버스 안에서 기침을 한다,
한 순간, 한 번의 접촉으로 지금, 전 세계가 위협하다.

홍콩 출장에서 돌아온 '베스(기네스 펠트로)'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하고 그녀의 남편 '미치(맷 데이먼)'가 채 원인을 알기 전에 아들마저 죽음을 당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불가사의한 증상을 보이며 죽어간다. 마른 기침, 고열, 발작, 뇌출혈, 그리고 결국 사망... 그 숫자는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런던, 파리, 홍콩 등에서 급증해 국경을 넘어 한 명에서 네 명, 네 명에서 열 여섯 명, 수백, 수천 명에 이른다. - Daum 영화

※ 201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전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5월 추천 영화 **오월애 - 못다한 오월의 이야기** 2011, 전체, 101분, 양동남 감독



1980년 5월의 광주,
당신의 기억 속엔 어떤 모습인가요.

기꺼이 가게 문을 열어 빵과 음료를 나누었던 구멍가게 황씨, 버스 한 가득 시민군을 태우고 금남로를 달리던 양기사, 주먹밥을 만들어 나르던 양동시장 김씨 아주머니와 열여섯 미순이 역시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이었다. 열흘간의 항쟁 이후, 세월은 거짓말 같이 흘러 그 날의 소년들은 어느덧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겼다.

5·18에 대한 기록이 정교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기록에서 제외된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다.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선명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그 기적 같은 봄날의 그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 오월의 학살자는 40년 동안 늘 그렇게 모르는 척 합니다.
한가닥씩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언제쯤 속 시원한 진실이 밝혀질까요?
1980년 5월, 평범했던 일상의 사람들이 오월을 어떻게 겪었는지 이 영화는 말합니다.

6월 추천 영화 **가버나움** 2019, 15세, 121분, 라딘 라바키 감독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출생기록 없이 살아온 12살 소년 '자인'으로부터

12살 어린 소년의 눈을 통해 바라본 레바논의 열악한 현실을 그렸다. 부모에게 착취당해온 소년 자인(자인 알 라피아)이 살해 혐의를 받아 수감되고, 자신의 부모를 고소한다. 집을 나와 자신보다 어린 1살 아기 요나스를 돌보는 소년의 악전고투가 영화 내내 펼쳐진다. - 시네21 이화정

※ 전세계를 울린 아동학대에 관한 영화입니다. 지난 6월 5일자 보도에 의하면 “엄마”라 부르던 아빠의 동거녀에 의해 수없이 학대를 받다가 끝내는 가방 속에 갇혀 숨진 한 아이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옥에 보낸다고 용서가 될까요?

평품소극장 영화 소개



7월 추천 영화 **셀마** 2015, 12세, 128분, 에바 두버네이 감독



"우리에게 꿈이 있다. 당신에게도 있는가?"
1965년, 투표권 투쟁을 위해 셀마 행진을 계획한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

1964년, 노벨위원회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 한편 앨라배마 주 셀마에서는 흑인 투표권에 대한 방해가 극심해져 가고 마틴 루터 킹은 존슨 대통령을 찾아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1965년, 마틴 루터 킹은 투표권 운동의 도화선이 될 셀마로 찾아가 행진을 계획하지만 경찰의 탄압으로 감옥에 수감되고 마는데...

“먼저 간 이들이 말합니다. 더는 안 돼!”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행진이 이제 곧 시작된다.

“〈셀마〉는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위대한 어느 지도자의 목소리와 승리를 쟁취한 어느 지역 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고자 하는 고군분투하는 어느 국가의 목소리. 나는 이 모든 목소리들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한다.” - 감독 에바 두버네이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 무릎에 짓눌린 채 숨진 사건(2020년 5월 25일)이 발생한 이래 미국민은 흑인 인권 보장과 인종 평등을 외치며 '공동체적 시민 평등권 운동'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화 《셀마》는 1965년 '미국의 흑인 투표권 침해 사건'을 다룬 영화로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담긴 언어 '인권과 평등'이라는 단어가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적 시민 평등권 운동'으로 획득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 줍니다.

도서관 앞으로의 이야기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억하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2020년 9월 19일(토) 10시 30분 한국전쟁 연구의 전강생으로부터 <한국전쟁과 판문점 이야기 - 판문점 70여 년의 역사와 남과 북의 운명>제목과 아래의 내용으로 인문학당 하반기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강연 내용 : 지금의 판문점(板門店 : 널문리 주막마을의 한자어)은 1951년, UN군, 북측, 중국측 대표로 구성 된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전협상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67년 동안 판문점은 남과 북에게 어떤 곳일까. 중요한 시기마다 전 세계의 눈이 한 곳으로 모아진 판문점은 정전체제에서 평화

체제의 상징물이 될 수 있을까? 한국전쟁 연구 전문가이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전강생으로부터 들어 본다.

정전협정 체결 장소인 판문점(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특별시 판문구역 판문점리)의 적대의 역사, 그리고 협력과 교류, 평화를 여는 희망의 역사를 시간대 별로 살펴보고 남과 북의 운명을 가른 주요한 사건과 합의, 협정 내용을 들여다본다.

특히 이 강연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한 판문점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사진, 동영상 등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연구 전강생
©제주의소리

평화도서관에 가면 '평화어벤져스'가 있다!

'평화어벤져스'는 평화도서관의 어린이 평화독서토론 수업의 이름이다. 이 멋진 어린이들을 만난 첫날을 기억한다. 8명의 4학년 학생들과 우리 반 이름을 공모하고 불리고 싶은 별명을 정했다. 여러 가지 이름이 후보로 올라왔지만 '평화어벤져스'라는 이름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더불어 우리반의 구호와 몸동작까지 만들어졌다. 그날 이후 우리 '평화어벤져스'는 평화를 주제로 다룬 다양한 어린이 문학을 함께 읽고, 스스로 발문을 하고, 토론하며 글을 쓰고 있다. 한편의 책을 읽었지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사건과 캐릭터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확장되고 다른 시각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평화도서관에 비치된 다양한 평화 그림책과 신간 그림책을 읽고 추천띠지를 작성한다. 그림책 사이로 살짝 얼굴을 내민 색색 짝의 추천띠지는 평화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평화 그림책을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 독자가 적어둔 추천 글은 또 다른 어린이 및 성인 독자들에게 책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자발적 독자로 이끌어준다.



여름산책



도서관 신간 북큐레이션 진행

4학년 때 만난 아이들은 자라서 어느덧 6학년 졸업반이 되었다. 시간의 흐름 안에서 신체변화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성장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나는 교사 역할로 이 수업을 이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을뿐더러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소식지에 실을 글을 의뢰받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되돌아보니 행복한 추억이 참 많았다. 독서수업이 끝난 후 마을길을 산책하며 떠들며 웃었다. 놀이터가 된 길에서 재미있는 몸놀이를 하며 또 웃었다. 그렇게 우리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놀이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평화어벤져스'의 즐거운 책읽기는 계속 될 것이다.

▼ 2019년 활동전시



평화어벤져스가 함께 읽은 책 (2018.01~2020.7)의 일부입니다

우리 손잡고 갈래? | 문학과지성사 / 모두를 위한 케이크 | 미디어창비 / 모르는 아이 문학과지성사 / 나무도장 | 평화롭음책 / 열두살 삼촌 | 도토리숲 / 나는 아직도 아픔입니다 | 평화롭음책 / 아동 노동·세계화의 비극, 착취당하는 어린이들 | 풀빛 / 모두가 행복할 권리 인권 | 봄별 / 나쁜 초콜렛 | 봄나무 / 더 나은 세상 / 산하 / 제노비아 | 지양어린이 / 난민이 뭐예요? | 라임 / 난민 : 왜 목숨 걸고 국경을 넘을까? | 풀빛 / 꼬마 난민, 아자다 | 주니어김영사 / 택시 소년, 지지 않는 잎 | 천개의바람 /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 고래이야기 / 제후의 선택 | 문학동네 /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 여유당 /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 프인돌어린이 / 돼지이야기 | 이야기꽃 /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 창비 / 르완다에 평화의 씨앗을 | 꿈교출판사 / 사자왕 형제의 모험 | 창비 / 세상 끝에 있는 너에게 | 모래알 / 만국기 소년 | 창비 / 내마음은 | 나는 별 / 돌 씹어먹는 아이 | 문학동네어린이 / 구조바람 | 씨드북 / 마사코의 질문 | 푸른책들 / 제무시 | 평화롭음책 / 책과 노니는 집 | 문학동네 /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합니다 | 봄별 / 푸른사자 와니니 | 창비 / 진정한 챔피언 | 모래알 / 복제인간 윤봉구 | 비룡소 / 가끔씩 나는 | 핑거 / 엄마사육방 | 창비 /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 꿈교출판사 / 덩기머리 탐정 김영서 | 프인돌어린이 / 고민해결 팽귄선생님 | 시공주니어 / 검은 후드티 소년 | 북멘토 / 보이지 않는다면 | 웅진주니어

평화롭음책방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도 평화롭음책방이 한국작가회의에서 진행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교화에 있는 '발전소책방점'이 주서점이 되고, 운정에 있는 '오래된서점'과 북파주에 있는 '평화롭음책방' 이렇게 파주 안에 있는 3개의 책방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재영작가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2번 작가를 초대해서 좋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5월 22일 신기철작가와 함께 '한국전쟁의 은밀한 이야기 : 한중,미 그들의 속내 이야기'

5월 29일 정명섭작가와 함께 '주남마을 사건으로 돌아보는 지금의 광주 5.18'

6월 12일 임경섭작가와 함께 '공존과 평화를 위한 일곱 번째 감각, 제무시'

6월 22일 조미자작가와 함께 '그림책으로 이야기하는 감정의 흔들림, 그리고 나의 움직임'

7월 10일 권윤덕작가와 함께 '권윤덕의 그림책 이야기, 나의 작은 화판'

7월 24일 한성훈작가와 함께 '인민의 얼굴-평화, 지금 북한을 이해하는 것'

이라는 강의를 평화롭음책방에서는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인원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강의였지만, 오히려 적은 인원이 작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작가들과의 만남, 어떤 강연이 진행될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책방 간단 소식

드디어, 책방에도 '서점온'이라는 포스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앞으로는 서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 기대해주세요^^

카페 소라브레드 소식



소라브레드는 매주 수요일~일요일까지 오픈합니다. 빵은 주말에만 구워요. 혹 평일날 드시고 싶다면 10개 이상 주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두포리의 썩을 빵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무공해 지역의 썩을 뜯어 깨끗이 씻어 말린 후 가루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더라도, 썩가루를 만들어주신 양은영화원님 고맙습니다.

※ 야외카페이고 안심거리두기가 가능한 카페입니다.



평화를 품은 집은 임진강과 DMZ(비무장지대)와 가까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평화·인권·환경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있는 ‘**평화도서관**’
 세계의 제노사이드 사건을 다루는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다종이 인형으로 전시한 ‘**다락갤러리**’
 다양한 주제에 맞춰 영화를 상영하는 ‘**평품소극장**’
 평화 관련 도서를 주제별로 엄선하여 판매하는 ‘**평화를 품은 책방**’
 새로 만드는 천연발효빵과 맛있는 커피로
 무거운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 주는 ‘**카페 소라브레드**’가 있습니다.



평화도서관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다락갤러리



평화를 품은 책방



소라브레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주제별 평화 도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평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동아리, 학교 연계, 가족 단위 등)
- 제노사이드와 일본군 ‘위안부’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쟁 관련 인근 지역 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평화프로그램

평화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활동 상황, 관심사, 연령, 인지단계 등을 고려하여 상담 후 진행합니다.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친구가 되어 주세요.

평화를 품은 집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부, 재능후원과 자원활동으로 운영됩니다.

친구 회원

CMS를 통해 월 2천원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기부

관련 도서 및 자료, 시설물 등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세요.

재능후원과 자원활동

도서 정리, 번역, 홈페이지 관리, 자료 제작 등 능력을 빌려 주세요.

후원계좌

국민은행 657401-04-002317 평화도서관

시설 이용방법

문 여는 시간 : 4월~9월 오전 10시~오후 6시

10월~3월 오전 10시~오후 5시

휴관 : 매주 월요일과 추석, 설 연휴, 매년 1월

입장료 : 제노사이드역사자료관과 다락갤러리 3,000원, 평화도서관은 무료